

대행 스님

나라는 존재를 세울게 없는것이 진리입니다

제주도에 와 본 지도 한참 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한 달에 두어 번은 올까 합니다.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루 이틀 익혀서 될 일은 아닙니다만 먼저 우리 마음이 정돈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과학과 모든 종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활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며, 나 자체가 있기 때문에 상대성 원리가 스스로 이렇게 같이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립해서 알아야 하고, 또 중용을 할 수 있는 원심력을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라 하면 우리가 밖에서 찾는 경향이 많습니다. 스님들도 정말 예전과 같이 밥이나 해다 놓고 목탁이나 쳐서 살림을 꾸려 나가는 살림 중이 돼서는 아니 되며, 여러분도 기복불교는 물론이고 이 신(神) 저 신을 찾으며 온통 이름만 믿고 다니는 습들을 놔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믿겠습니까, 형상을 믿겠습니까, 허공을 믿겠습니까? 이제는 단호히 결심해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옛날부터 우리의 역사에 고난이 많았던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마음들이 그런 역사를 가져온 것이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한마음에서 마음먹는 대로 나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인간은 바로 자동적으로 천차만별의 마음을 낼 수 있는 고등 동물입니다. 밥 먹고 똥 누고 잠자고 하는 것도 과학이죠. 과학이라고 하기 이전에 역시 심성은 꼭 빼놓지 않아야 된다. 심성 빼놓고 뭣이 있겠느냐는 얘깁니다, 모든 게.

그러면 인과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할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인과, 업보, 유전, 조상의 문제 등에 관해 가르칩니다. 그리고 "네가 한번 남을 망하게 했으면 네가 바로 그 업보를 받아서 망하게 된다."라고 인과법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고(苦), 집(集), 멸(滅), 도(道)'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고라고 이름을 붙여 놓고 고라고 하니까 고인 것이지, 고가 있다면 어떤 것이 고인지 내놔 보십시오. 집착이 있다면 어떠한 것이 집착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남을 한 번 때렸으면 너도 한 번 맞는다. 이것을 바로 인과응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인과응보라고 이름 붙이기 이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한 번 때렸으면 한 번 맞는다 할 때 '아하! 때린 것도 나고, 내가 때렸기 때문에 바로 내가 맞은 것이다.' 이런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한 번 때려 보고 한 번 맞아 보니까 말입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알게 되고 자기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나를 내가 성숙하게 만드는 수행 과정이라고 생각할 때 거기에는 업보가 붙지 않습니다.



그림 · 최주현

그건 무슨 까닭인가? 우리는 지수화풍(地水火風)입니다. 어떠한 물질이든지 지수화풍 아닌 게 없습니다. (잔 받침을 들어 보이시며) 이거 하나도 지수화풍입니다. 지수화풍 아닌 물건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주 개공(宇宙皆空)이 이 접시 안에도 들어 있다."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네 가지가 한데 합쳐졌기 때문에 하나가 됐으니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인간도 지수화풍이 다 있기 때문에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지수화풍으로 뭉쳐진 이 자체는 집이지마는 그 지수화풍 속에서 생명체가 움죽거리고 있다는 사실, 꿈틀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옛날에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어느 아주 어려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한 부부가 자식이 없이 살고 있었는데, 너무나 자식을 기다리고 기다리던 터에 자식이 생기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뭣 때문에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도 모르고 좋아하기만 했죠. 아들 형제를 얼마나 좋아했던지 그지없이 잘 길러서 글방에도 보내고 했답니다. 그렇게 무럭무럭 자라서 근 여남은 살이 됐는데, 하루는 어느 스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아들 형제를 뒀지만 그 애들은 당신 원수를 갚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다. 언제 적의 당신 아들이 아니라 지금 현생의 문제인데, 당신이 지은 죄과라기보다도 이 한 세상을 살아오면서 헤아릴 수 없이 거미와 깻벌레를 많이 죽였기 때문에 그 애릿한 의식이 한데 모여서 당신한테 아들로서 태어났다. 그래서 내일 모레 글피면 부부가 깻벌레와 거미한테 잡아먹힐 시기가 되니까 조심하라." 그러거든요.

만약에 그 스님을 믿지 않았다면 어쩔 수 없이 모두 원수 갚음을 받게 되고, 그러면 또 그게 원수가 되고 그랬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니까 그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미리 준비해 놨다가 내일 모레쯤 돼서 겻불을 마당에다 두 무더기를 피워 놓고, 병아리 우리를 두르는 철망을 갖다가 둥그렇게 뺑 돌려서 치고, 공석때기를 쳐서 그 안에서 겻불이 타게 하는데, 그저 구멍이라는 것은 요만큼만 남겨 놓고 다 싹 돌려서 막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겻불이 타면서 연기가 꾸역꾸역 위로 올라가겠죠? 그렇게 하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모든 것은 내가 다 알아서 처리를 할 테니 내가 시킨 대로만 하라." 그러시더랍니다. "어떻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하니까 "아들 형제가 서당에서 돌아오기 바로 전에, 한 사람이 먼저 항아리 속에 들어가면 남은 사람이 뚜껑을 덮어 준 뒤에 자기도 들어가서 뚜껑을 덮고 기다리되 아무리 '엄마, 배고파! 아버지, 배고파!' 하더라도 뚜껑을 열어 보지도 말고 나오지도 말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아무 소리가 없더라도 한 시간은 흐른 뒤에 나와야 한다. 그러면 알 바가 있느니라." 하거든요.

그래서 그날을 지켜서 그대로 했습니다. 그랬는데 웬걸 "아버지! 엄마!" 하고선 그냥 온통 집 앞뒤로 찾아다니면서 배고프다고 엉엉 울고 그러는데 항아리 속에 있던 부부는 가슴이 미어져 나가는 듯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가 없어서, 한 끼 굶는다고 죽는 법은 없으니까 한번 스님이 하라는 대로 해 봤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더니 아닌 게 아니라 "이 연놈들 어디 갔느냐!" 하고 그냥 욕설을 퍼부으면서 "원수를 갚기 위해 우리가 그렇게 애를 쓰고 애를 써서 인간 환토를 했는데 아, 이 원수를 갚지 못하고 시간이 점점 가니 이 노릇을 어떡하면 좋으냐. 이때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애를 썼느냐!" 하면서 둘이 욕을 욕을 퍼부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기밀을 알고 없어졌느냐." 하면서 온통 찾아다니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가슴이 미어지게 아프던 것이 싹 없어지고는 그냥 몸서리가 쳐지고 소름이 쫙쫙 끼치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그렇게 잔인하게 우리를 오줌독에다 넣고 죽였으니 우리도 잔인하게 피를 빨아 먹어야 할 텐데…." 이러니까 소름이 쫙 끼치죠. 그래서 그 안에서 쥐 죽은 듯 하고 있으니까, 얼마 있더니 "시간은 점점 가는데 이 연놈들에게 원수도 못 갚고 어떡하느냐? 인제는 앞으로 천 년이 가도 만 년이 가도 원수 갚을 기회가 없는데, 어디 갔느냐!" 하고 막 울부짖고 그러더랍니다.

그러다 얼마 있더니 아무 소리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한 시간 반을 있다가 나와 보니까, 하여튼 한쪽은 거미고 한쪽에는 깻벌레인데 말입니다, 오물오물하더랍니다. 아주 그냥 자기가 죽인 수효대로, 애 적부터 죽인 그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그 겻불에 엉겨 붙어서 죽은 놈도 있지마는 오물오물하는데 너무 징그럽고 너무 기가 막혔더랍니다. '그게 아들이었다니….' 하고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들로 뭉쳐졌다니….' 하구요.

여러분,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장육부가 어떻게 돼 있나. 또 대의적으로 본다면 오대양 육대주가 어떻게 돼 있나. 우리가 지구 벌레 아닌가. 그럼, 지구가 우리 인간의 집이라면 그 집이 지금 어디로 돌아가는지 모를 겁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돌아가는지, 찰나찰나 돌아가는 순간순간을 여러분은 지켜보지 못하고 생각조차도 못 할 겁니다, 아마. 그와 같이 우리 인간 자체의 그 오장육부에는 사생(四生)이 들어 있습니다. 화(化)해서 나는 거, 알로 나는 거, 습생(濕生), 태로 나는 태생(胎生), 이런 네 가지의 종류를 사생이라고 합니다. 이 사생도, 태로 나는 종류도 허다하게 많고 알로 나는 종류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또 화해서 나는 생명들도 많고 습생도 많습니다.

그러면 천차만별로 돼 있는 종류를 우리가 관찰해 볼 때 그것이 어디로부터 그렇게 인연이 돼서, 우리 인간의 몸뚱이에 그 수십억 마리가 한데 합쳐져서 나의 한 혹성을 만들어서 이렇게 쉬지 않고 자동적으로 돌아가게끔 하고 있나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

☞ A18면으로 계속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 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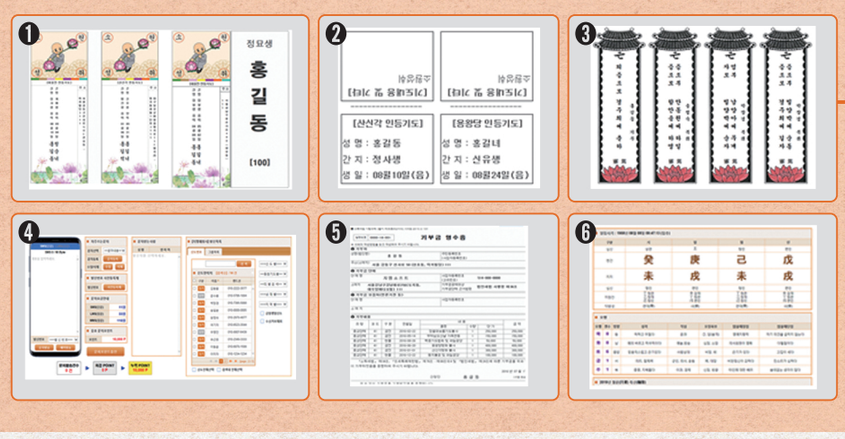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GM SOFT since 2015 사찰신도 관리 프로그램

동종업계 최저가격

"번거로운 설치없이 이용가입 후 바로 사용 가능"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우수"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 월사용료 기본 19,800원 | 설치비 · 세팅비 전액무료



프로그램 주요 기능

❶ 연등표 출력
❷ 인등표 출력
❸ 위패출력
❹ 문자발송
❺ 기부금 영수증
❻ 사주팔자

부가서비스

• 원격지원 | 해당 사찰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명 및 오류 수정
• 적립포인트 제도 시행 | 접속률, 이용후기작성, 사용료 3% 등 최대 22,000P 제공
•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신도생일 및 신도영가 기일 자동 표시
• 물품관리, 전국 날씨정보, 메모장, 일정관리,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 다운로드 가능

지엠소프트 [지엠소프트]를 검색하세요

대표전화 070-7633-2525, 010-8588-2525
상담문의 평일 09:30 ~ 17: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www.gmst.co.kr